

'억' 소리 나는 수입차 억수로 팔렸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가 인기를 끌며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 역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수입차 중에서도 친환경차가 디젤과 가솔린차의 판매량을 넘어섰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고가의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6일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17만2146대로,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수입차는 3만9965대였다.

이는 전체 수입차의 23.2%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중이 15.5%였다는 점에서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해 1~7월 2만2951대와 비교해서도 무려 74.1%나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4만3158대)에 근접하면서 연간 판매에서도 최다를 경신할 가능성도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BMW, 아우디 등 독일 수입차 3사의 고가 수입차 판매량 역시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수입차 브랜드 1위인 벤츠는 작년 1~7월 9649대에서 올해 1만7524대로, BMW는 5286대에서 1만1535대로, 아우디는 1305대에서 2437대로 증가했다.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월 1억원 이상 수입 SUV는 1만205대가 팔렸는

7월까지 1억 이상 고가차 4만대 팔려 SUV·친환경차 인기 속 전년보다 74% ↑ 벤츠, 전기차 EQS 곧 출시...경쟁 치열

데, 올해에는 2만1398대가 팔리며 2배가량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수입 친환경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는 올해 1~7월 2만470대 판매돼 전년 같은 기간 5112대보다 400%가량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친환경차는 디젤·가솔린차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을 넘어섰으며 그 비중이 51.2%에 달했다. 고가의 수입차 절반 이상이 친환경차인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친환경차 비중은 22.2%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최근 친환경차 판매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세계 자동차업체가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 전략을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고성능 친환경차를 연이어 출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하반기 국내외 업체간 럭셔리 전기차 주도권 역시 더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예측돼 고가의 친환경차를 비롯한 1억원 이상 수입차의 판매 증가세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현대차가 지난달부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본



수입차 인기 속에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 역시 친환경차를 주축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모델 EQS.

격적인 판매에 나섰고, 기아도 첫 전용전기차 EV6 판매를 시작해 불을 붙였다.

무엇보다 벤츠는 S 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인 EQS를 곧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QS는 최소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친환경차 모델을 선보였던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고가의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차 브랜드들이 친환경 전환에 나서면서 고급차 중심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EV6' 출시 기아, 전기차 멤버십도 내놨다

국내 20개사 충전소 이용 가능 전기차 구매 고객 충전 걱정 해소

기아는 첫 전용 전기차 'EV6'(사진) 출시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차 멤버십과 차별화된 전기차 멤버십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전용 멤버십인 '기아 EV 멤버스'는 충전 로밍, 카 케어, 라이프 케어, 차량 정보 등 4가지 분야 서비스로 구성됐다.

멤버십 고객은 '기아 EV 멤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와 취향에 따라 신청 후 결제하면 되고, 결제 시 보유한 기아 멤버스 포인트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기아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에스트래픽과 제휴를 통해 충전 통합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Kia VI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사업자별 별도 가입 없이 국내 20개사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충전 결제 시 모든 제휴 충전소에서 기아 멤버스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기아의 충전 대행 서비스 '온디맨드 픽업 충전 서비스'와 현대차그룹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기아는 신차 외관 손상과 관리에 특화된



다양한 'EV 카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드미러, 도어, 범퍼 등 미리 선택한 부위의 외관 손상을 교체 또는 수리를 보장해준다.

또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 전기차 종합 정비 서비스인 'EEverything Care'도 제공한다.

출고 월 기준 8년간 8회에 걸쳐 고전압 배터리를 교체, 모터 룸 냉각수, 감속기 오일 등의 주요 항목을 무상 점검하고,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주행 중 배터

리 방전 등의 긴급상황 발생 때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기아 관계자는 "멤버십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의 충전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구매 고객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G80 스포츠' 출시

제네시스는 G80에 역동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가한 G80 스포츠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런트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리어 범퍼 등에는 다크 유광 크롬이 적용됐다.

전용 외장 색상 '캐번디시 레드'와 전용 내장 색상 '옵시디언 블랙·세비아 레드'도 추가됐다. 캐번디시는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휴양지로, 그곳에 있는 붉은색의 절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네시스는 G80 3.5 터보 모델에 스포츠 세단의 성능이 추가된 3.5 터보 전용 다이내믹 패키지 모델도 출시했다.

다이내믹 패키지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 스포츠+ 모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등이 탑재됐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후륜 조향 시스템은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 조향과 함께 후륜 조향각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60km/h 이하 저속 주행으로 회전할 때 뒷바퀴를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회전반경을 줄이고, 고속 주행 때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 빠른 차선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



'스포츠+' 모드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을 기본 모델 5.1초에서 4.9초로 줄일 수 있다.

G80 스포츠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5733만원, 가솔린 3.5 터보 6253만원, 가솔린 3.5 터보 다이내믹 패키지 6558만원, 디젤 2.2 5871만원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G80 스포츠 패키지는 차별화된 전용 내·외장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차량"이라며 "3.5터보 전용 다이내믹 패키지는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즐기는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